

콘서트 수행한담

다른데서 찾으려 마세요”



1959년 동도사에서 하안거 해제를 하며 도반들과 함께했다. 셋째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원훈스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일하는 틈틈이 경전을 읽으며 신심을 키우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너 해를 보낸 후 육자에 온 스님들이 내 한문 실력이 좋다고 양주 봉선사 운허스님(1892~1980)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분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화방사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선 삭발을 하고 운허스님을 뵈고 은사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사스님 얼굴도 모르는채 출가를 했습니다. 그 때가 스무살이었는데 운허스님을 찾아뵈려는 터에 덜컥 전쟁이 나 버렸어요. 피난다니다가 운허스님을 뵈었어요. 스님이 동래 범어사에 계시

하시고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죽으나 사나 혼자 하루종일 공중 대다 다음날 제출하면 보시고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기만 했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경전을 번역. 현대적으로 개편해서 가르치고 배우면 어떻까 하고 여쭙았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종교, 특히 부처님 말씀에는 현대도 구대도 있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업을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옛 어른들도 보고는 또 잊고, 잊고는 또 보고 그렇게 성취하였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역경은 부처님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한글로 쉽게 경전읽게 하는 일은 불사중에서도 큰 불사입니다

이지요. 정작 문제는 가래와 안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경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질구래하게 지적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공부를 해치는 것입니다. 운허스님의 수업방식이 그러했고 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의 역경 일인자인 구마라습(343~413)은 서역 출신으로 어머니가 출가하자 5세 때 자신도 따라서 출가한 사람입니다. 서역은 요즘 같으면 이란 이라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중국 전진왕 부견은 서역으로 사람을 보내 구마라습을 빼앗아왔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보니 전진이 이미 망하고 없어 구마라습은 국양이라는 나라에 임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후진에서 구마라습을 데려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자 결국 후진에서 머물며 활발한 역경사업을 벌였지요. 역경은 부처님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역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평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은사스님이 원장 때 고려대장경 아닌 것을 많이 번역했더라구요. 3천6백여 권 책 한 권을 만든 것을 3천2백여 권 한 권을 만들었던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쪽 나온 것이 실제로는 145쪽 정도 분량밖에 안되는 거예요. 출간해야 될 분량이 배로 늘었으니 재정지원을 더 해 줘야 못하겠나 싶었는데 실경을 벌였지요. 1년에 30쪽을 만들어야 5년동안 150쪽을 채울 수 있어요. 돈도 인원도 모자랐지요. 1년 예산이 11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정부는 3억원밖에 안주고 책을 만들어 팔아봐야 4~5억원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 역경후원회가 만들어져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열심히 마무리를 해 여법하게 회향해야지요. 역경후원은 바로 법공양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중앙 중에 법공양이 으뜸이에요. 법당 건립 불사에 동참하는 것만이 공덕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사업은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경전을 한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큰 불사입니다.

불사들 중에 어떤 경전을 봐야 좋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경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읽어보고 마음이 끌리는 경으로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경전을 선택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읽는다면 훨씬 좋겠지요. 요즘 방송 출연을 하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한결같이 좋았다는 말들만 늘어놓지요. 뭐가 그리 좋았냐고 물어보면 스님을 TV로 보아서 좋고 법문 들어서 좋다는 그런 얘기로요. 그런데 정작 법문내용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있는지 지적하는 불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문을 하면 그 내용을 듣고 체화할 시켜야 합니다. 소리만 들으면 뭐하니. 아니 소리도 제대로 못듣고 스님 얼굴만 쳐다보면 성불할 수 있답니다. 진정한 부처님 말씀을 이 시대 수행자를 통해 다시 듣는다는 자세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듣고 경전공부도 병행해서 하세요. 성불하는 수행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경전



대승장엄보왕경



김무생 위덕대 교학처장

경전을 읽는 것은 자기를 읽는 것이다. 그것은 경전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전의 의미는 읽는 사람의 경지에 따라서 달리 느껴진다는 뜻도 되겠다. 그 때문인지 같은 경전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

나의 불교 입문은 육자대명왕진언 '올마니반메후'의 영송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대승장엄보왕경>을 읽게 된 것은 이 경전이 육자진언을 살하는 유일한 경전이기 때문이었고, 그 시기는 70년대초라 생각된다. 그 때 나는 불교신앙에 대한 교학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신앙실천하고 있던 '육자진언' 넓게는 '진언'에 대한 교학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육자진언을 살하고 있는 유일한 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에 의하여 진언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그런데 부처님은 관자재보살이 이러한 위신력을 갖추고 제도과 구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자진언' 올마니반메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육자진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육자진언이 가지고 있는 무량한 공덕상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재가장보살을 위해 육자진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자, 재가장보살은 스스로 육자진언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법사의 인도로 관세음보살이 울성으로 시련하는 육자진언을 듣고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온다. 그때에 칠십칠구지 여래가 준역진언을 살하고 관자재보살의 몸의 터럭 구멍에서 상서로운 기적이 나타나진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경전의 내용을 화공처럼 구성하여, 이야기 사이에서 불법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담고 있어 읽을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

육자진언·관음신앙 회곡처럼 구성 불교사상 대중화 위한 서민의 경전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10세기 초반에 성립이 완성되어 10세기 말경에 중국에 전래 번역되었다. 이 경전은 범어를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경전문헌 중의 하나로 대접받고 있다. 그것은 <대승장엄보왕경>이 관음신앙의 마지막 발전 형태, 밀교의 관음법문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의 주제는 관자재보살과 육자진언이다. 내가 처음 이 경전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한편의 회곡을 읽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의 대화에서 시작한다. 부처님은 전생에 과거칠불로부터 들은 관자재보살의 총생 구제의 모습을 리얼하게 살리고 있다. 즉 관자재보살이 뛰어난 위신력으로써 갖가지 몸으로 화현하여 지옥을 비롯한 육도의 총생을 구제하고, 천궁의 천자, 나찰녀, 심지어 갖가지 종류(羅刹) 등을 화도하고, 나아가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 나찰녀의 재난을 받고 있는 오백상주(五百商主) 등을 구제하는 장면이 경전의 전반을 채우고 있다.

준다 경전을 읽어가자는 흥미를 일으키면서 깊이있는 교리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지만큼 받을 수 있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관자재보살은 본성이 '무자성(無自性)하여 영에도 보지 못한다'는 내용과 육자진언은 '반야바라밀다(般若)'가 널리 실천할 수 있는 구절은 백미에 해당한다. 사실 관자재보살은 우리들 본성의 상징이요, 이상상이며, 관자재보살이 구제의 활동을 펼 지 많은 고난고행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사회상이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자혜하여 어떠한 고난과 환란도 극복할 수 있고, 결국 개척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평범한 법사의 등장을 앞둔 법의 무차별 평등주의와 대중성을 강조한, 이 경전이 성립할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곧 <대승장엄보왕경>이 교린한 불교사상을 대중사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짜여진 서민의 경전이며, 우리들 인간의 자기구원을 위하여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있고 있다.

지혜와 자비 얻으려면 모든일에 침착 경전 새겨읽고 법문 듣고 체화 시켜야

다는 얘기를 듣고 부러부러 찾아갔지요. 다른 스님들로부터 내 이야기를 들으셨던지 운허스님께서는 별 말씀없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범어사에서 운허스님이 하였던 <능엄경> 강의는 지금도 명강의로 유명해요. 교학과 수행에서 단연 일인자였던 운허스님은 강의 도중 '능엄경'을 살하게 된 동기를 쓰라'는 과제를 주셨고 나는 한문으로 답을 써 냈지요. 다음날 저녁 스님은 나에게 참선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학을 볼려고 익히도록 분부를 내리셨어요. 경학이 불교를 일으킬 것이구요. 운허스님은 등 서양 학문에 두루 조예가 깊은 석학이셨어요. 칠판 앞에서 경전을 강의하실 때는 참으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나에게 찬주(贊註)를 보라

오늘날까지 내가 운허스님이 머물던 봉선사에서 한 평생 경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스님에게 어떻게 수학했던 탓도 있었지만 수억겁에 걸친 인연 때문일 겁니다. 출가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고승 문수암의 청담스님이 실천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지도를 받기위해 찾아갔지요. 그곳에서 얼마간 생활했는데 하루는 청담스님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고마상(道高魔尙)이 생기는 법이야" 하시더군요. 그 뜻은 도를 닦지 않는 이 예전 마가 생기거나 극성을 부리는 법이 없으니 마 생각을 오히려 반감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방황과 방민은 수행 자리면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것

불경 속에 성불하는 길이 있어요. 길을 이탈해 무엇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경을 통해 부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길은 경을 읽고 부처님이 가르치신대로 실천하는 것이 모래 한 줌이라도 보탬이 있는 길이에요. 나는 93년도 12월에 동국대 역경원장에 임명됐어요. 한글대장경 간행계획에 의하면 전부 250책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180책이 나와 있었어요. 그해 대통령에게 30억원 보조해주면 5년동안 해마다 14책씩 70책을 끝마치겠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취임하더니 맘이 바뀌어서 연 3억원씩만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서는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Advertisement for Sun Dal-su's Buddhist services, including funeral rites and sutra recitation.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ul, Gwangju, and Daegu.

Advertisement for Hong-hwa's medicinal products, featuring 'Hong-hwa's Magic' and 'Min-suk Hong-hwa's' products. Includes contact details and a list of ailments treated.

Advertisement for 'Nanchi-byeong' (난치병 치료) treatment, claiming to cure various chronic diseases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Lists symptoms like mental illness, diabetes, and hypertension.

Advertisement for 'Modern Informatio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offering marriage counseling and research. Features a testimonial and contact information.